



5면

“교육공동체 모두에 부정적 영향”
온라인수업, 학습격차 심화 확인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음 4월 7일) 제2780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활성화 ‘맞손’

전북도, ‘국내 최대 부품 유통 가능’ 경기도와 협약

전북, 부품 개발·공급... 경기, 수요처 확보·소비 활성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기업을 살리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전북도가 경기도와 손을 맞잡으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7일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품 확산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체인증부품’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순정품과 성능 및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순정품 대비 30% 정도 저렴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을 국내 최대 부품유통 지역인 경기도가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해 관련 시장을 육성 지원한다는 데 두 광역자치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마련됐다.

협약식은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과 대체인증부품 지원센터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도와 경기도는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대체인증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 기획, ▲대체인증부품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 된다.

그간 전북도는 자동차 대체인증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공동활용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대체인증부품 개발·생산을 위해 사출성형기 레이저 가공기 등 10종의 공동활용 장비를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한 군산, 정읍, 김제 등 8개 기업이

전국최대인 12개 제품을 개발해 국토부 인증을 받는 등 전북도의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 지역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인증부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판로·유통망 부족으로 인해 대체인증부품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대체인증부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전북도의 기업들이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도내 대체부품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자동차 소비자들이 순정품과 비슷한 품질에 가격은 저렴한 대체인증부품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대체인증부품 산업의 성장태도이자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한 판로 개척에 경기도가 함께하기로 해 지역의 기업을 살리고 전국의 소비자를 이롭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만든 제품을 알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매출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번 협약이 전북 대체인증부품 생산기업과 전북 경제가 한 번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며 “경기도와 함께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순정품 제품과 품질은 유사하고, 가격이 저렴한 대체인증부품의 확산을 통해 소비자는 부품선택권이 다양해지고,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시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소비촉진과 공정경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기도-전라북도 업무협약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 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가 17일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전북도-경기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도, 고졸 청년 대상 특화지원 참여자 모집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국비 3억2000만원 확보
미취업 50명, 내달 12일까지... 취업연계 지원

전북도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북 고졸청년특화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 고졸청년특화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전북도와 (사)한국캐리어가 함께 참여해 고용노동부의 ‘고졸청년특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3억2,000만원(총사업비 4억)을 확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기업 현장중심 실무교육, 체험중심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장려금 등이 지원된다.

기업 현장중심 실무교육은 ▲물류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교육(BRP 인사회계, 전산화계1급, OA, 실무교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 및 기구 설계 실무교육(CAD, 인벤터, 3D, 실무교육)을 진행하며, 참여 교육생에게는 전액 무료 교육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을 하는 데 실질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전문 취업상담, ▲1:1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현직 인사담당자 면접 시뮬레이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직 현장실무자 멘토링 등 체험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개월간(월 50만원) 총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졸 청년들이 전북에서 취업역량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만 34세 이하의 고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캐리어 ☎ 063-227-8735, www.jup.kr,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 ‘지오드림’ 선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추진 중인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오드림(Geo-Dream)’ 사업기 관으로 선정되며, 5월 중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관련기사 8면)

전북도는 17일, 환경부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이 공모한 지오드림 사업기 관으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오드림 사업은 지질공원 내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질교육, 지질공원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 비용은 전액 무료다.

10월까지 고창 아동센터 대상 현장 체험학습 운영

도, 향후 교육 프로그램 부안·군산 등으로 확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창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현장 체험학습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교육은 찾아가는 지질교육을 통해 지구의 탄생이유, 암석 구별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체험학습인 지질공원 탐방을 통해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군 탐방, 환경정화 활동(플로깅) 등이 진행된다.

전북도는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부안과 군산, 진안, 무주 등 도내 지질공원 운영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영식 도 자연생태과장은 “이번 지오드림 사업 선정과 운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19일 석가탄신일 관계로
신문은 20일 발행합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